

에너지·탄소경영 논의와 시사점

2012. 3. 27

철강전략연구센터

posco
포스코경영연구소

Executive Summary

에너지·탄소경영 논의와 시사점

□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환경협상(기후변화협약 등)의 모멘텀 약화에도 불구하고,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는 보다 강화될 전망

□ 특히,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생존 키워드는 에너지·탄소경영이며, 핵심 이슈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

① 주요국의 에너지·탄소 정책 강화

- 주요국들은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·탄소 정책 추진
-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 및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등 시행

② 에너지·탄소경영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

- 에너지·탄소경영 조직 체계(ISO 50001) 및 성과 검증(ISO/AWI 17580)에 대한 국제표준 확산
- 국내 제도로 성과 검증 결과의 설비 또는 기업 등급화 추진 가능성

③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의 영향력 확대

-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 평가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적용이 확대, 대표적인 평가기관으로 SAM, DJSI, FTSE4good, CDP, Global 100 등

□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벌 표준에 준한 에너지·탄소경영 역량 및 지속가능경영 IR/PR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에너지·탄소경영 체계화를 통한 역량 강화, 에너지·탄소 국제표준 대응 및 조직 체화 그리고 지속가능경영 측면의 IR/PR 강화가 저탄소 사회 기업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건이 될 전망

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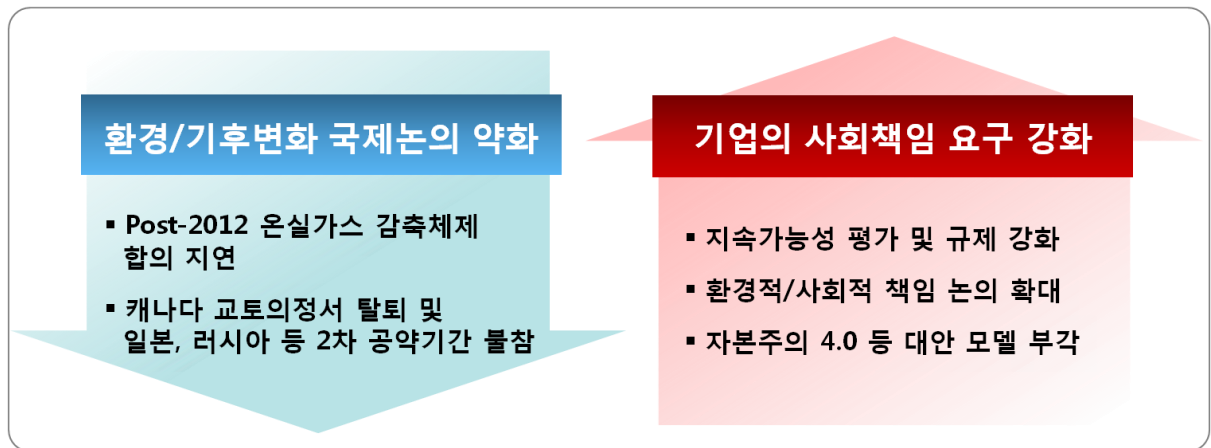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대기업 에너지·탄소경영 요구 증대	1
II. 에너지·탄소경영 핵심 이슈	2
III. 종합 및 시사점	5

I. 對 기업 에너지·탄소경영 요구 증대

□ 글로벌 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 가운데, 환경/기후변화 이슈 관련 상반된 움직임 전개

- 환경/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모멘텀이 약화되어 단일 협상이 지연되는 추세
- 특히 기후변화협상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불참 선언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
- 반면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환경적/사회적 책임 논의는 더욱 확대되며,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



<그림 1> 글로벌 경영 여건 변화

□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기업에 대한 환경적/사회적 책임 키워드는 에너지·탄소경영이며, 핵심 이슈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

- ① 주요국의 에너지·탄소 정책 강화
- ② 에너지·탄소경영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
- ③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의 영향력 확대

II. 에너지·탄소경영 핵심 이슈

1. 주요국의 에너지·탄소 정책 강화

□ 주요국들은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·탄소 정책을 추진 중

- (신재생에너지) 저탄소 사회 구축과 함께 녹색 신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선언하고,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 정책 추진
 -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,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(RPS) 등
- (온실가스/탄소)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, 지역 및 국가 여건에 따라 탄소배출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
 - (경제적 유인) 배출권거래제(EU, 뉴질랜드 등), 탄소가격제(호주) 등
 - (직접 규제) 온실가스배출허가제(미국), 에너지소비규제(중국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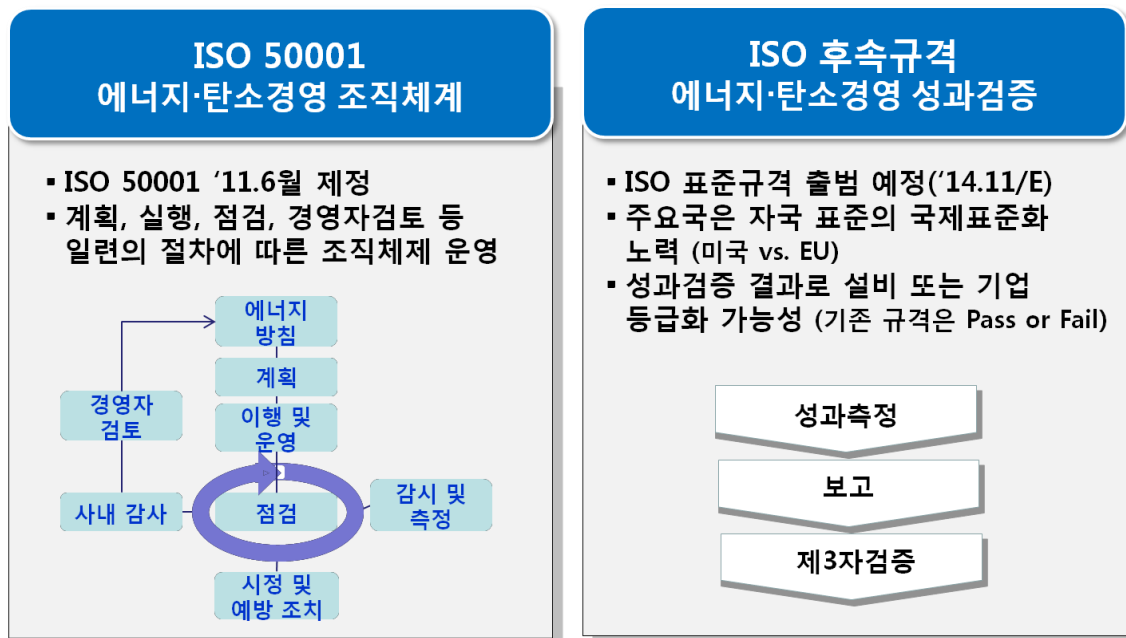
□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, 에너지·탄소 정책 추진 가속화

- 탈석유·에너지자립 강화 측면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% 목표를 수립하고, 2012년부터 RPS 도입 등을 통해 개발·보급 확대 및 성장 동력 산업화를 추진
-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2020년 BAU(Business as Usual) 대비 30%) 달성을 위해 에너지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며, 2015년 시행을 목표로 한 총량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이 국회 특위를 통과(2012. 1)

2. 에너지·탄소경영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

□ 에너지·탄소경영 조직 체계(ISO 50001) 및 성과 검증(ISO 17580)에 대한 국제표준 확산

- (ISO 50001) 에너지·탄소경영의 계획-실행-점검-경영자 검토(PDCA) 절차에 따른 조직체제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(Energy Management Systems, EnMS)
- (ISO/AWI 17580) 에너지·탄소경영 성과 모니터링, 측정, 평가 및 검증에 대한 국제표준(Organizational energy performance)
 - 특히 우리나라 국제표준 주관 기관인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내 제도로 성과 검증 결과의 등급화를 추진
- ISO 국제표준과 지역 및 국가별 표준에 대한 상호 인정(Mutual Recognition)이 확대될 가능성
 - 미국은 자국 에너지효율 인증(Certification) 제도인 SEP(Superior Energy Performance Partnership)을 글로벌 상호 인정체제로 추진 (Global SEP, GSE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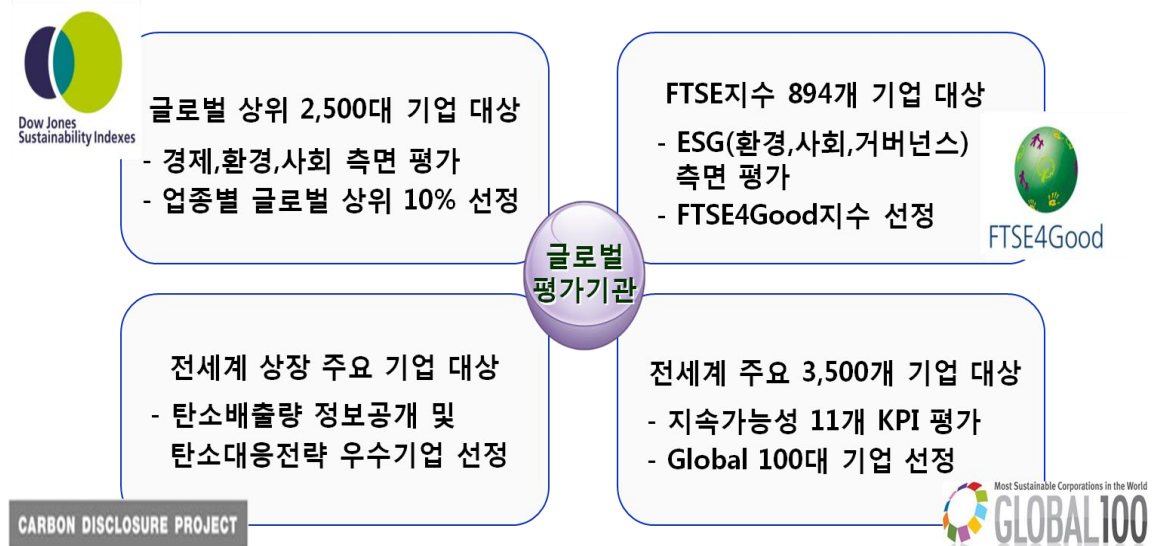


<그림 2> 에너지·탄소경영 국제표준

3.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의 영향력 확대

□ 투자자들의 기업 가치 평가 기준으로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,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는 ‘지속가능성’ 적용이 확대

-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회책임투자(SRI) 펀드 규모는 2007년 4조 4천억 유로에서 2010년 7조6천억 유로로 지속적 증가(출처: Eurosif)
- 특히 에너지·탄소경영은 기업경쟁력 및 미래 가치와 직결됨에 따라 글로벌 주요 평가기관의 핵심평가 분야
 - SAM DJSI(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), FTSE4good(파이낸셜타임즈-런던증권거래소 지속가능성지수), CDP(탄소정보공개), Global 100(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) 등



<그림 3> 주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

Ⅲ. 종합 및 시사점

-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환경협상(기후변화협약 등)의 모멘텀 약화에도 불구하고,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는 보다 강화될 전망
- 특히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경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‘에너지·탄소’가 핵심 이슈로 대두
 - 이는 국내외 에너지·탄소 정책 강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, 지속가능성 평가 강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
 - 2012년 6월 개최예정인 Rio+20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에서는 ‘Green Economy’를 달성하기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될 전망
-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으로 글로벌 표준에 준한 에너지·탄소경영 역량 및 지속가능경영 IR/PR을 강화할 필요
 - ① 에너지·탄소경영 역량 강화
 - 에너지·탄소경영 체제 확립
 - 에너지·탄소경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강화
 - ② 에너지·탄소경영 국제표준 대응
 - ISO 50001 인증 획득 및 경영활동에 체화
 - 후속 국제표준(성과검증) 동향 파악 및 논의 참여
 - ③ 지속가능경영 IR/PR 강화
 - 지속가능경영 커뮤니케이션 수단 강화
(예)지속가능성/환경보고서 및 국내외 미디어
 - 주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과 파트너십 강화
(예)공동 연구 및 컨퍼런스/포럼 개최 등

안윤기(e-mail: ygahn@posri.re.kr)

진윤정(e-mail: chin@posri.re.kr)

안정권(e-mail: reclaimant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.